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검찰  
PROSECUTION SERVICE

# ‘블랙아웃’ 뒤에도 계속되는 카카오 악재…사법 리스크 현실화



카카오는 각종 악재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로 플랫폼 초연결사회에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 밖에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잇따랐고, 실적과 주가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이 19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법 리스크마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적 불편을 불러일으켰던 ‘카카오톡 멕통’ 사태가 채 아들기도 전인 지난해 11월 초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377300] 대표가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전해졌다.

류 전 대표는 2021년 11월 말 카카오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됐으나 같은 해 12월 카카오페이 임원들과 함께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 개인적으로 약 469억원을 현금화해 논란을 촉발했다. 당시는 카카오페이 상장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류 전 대표는 작년 1월 내정자 신분에서 물러난 뒤 카카오페이지 대표도 임기를 약 두 달 남기고 내려왔다. 경영진 ‘멕튀’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등판했으나 카톡 ‘멕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94억3천 200원의 차익을 챙겼다.

지난달에는 카카오의 재무그룹장(부사장)이 벤카드로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업무에서 배제된 뒤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카카오 노동조합이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까지 받는 처지에 놓였다.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는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미라이니셔티브 센터장도 예외가 아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달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거제지는 정치권의 견제와 압박도 카카오에는 부담이다.

최근 카카오의 모빌리티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화물 중개 시장 진출을 앞

## 경영진 도덕적 해이 이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투자총괄 구속 정치권 견제·압박도 거세…악화한 실적·주가에는 설상가상

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카카오의 사내 독립기업(CIC) 다음CIC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은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에서 일방적 중국 응원 클릭이 나온 탓에 흥역을 치렀다.

카카오 흥은택 대표는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치, 사회적 논란과 별개로, 실적과 주가 부진은 카카오의 가장 큰 부담이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당초 예상보다 큰 자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신사업 추진이나 대규모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분기 카카오의 영업이익은 711억원으로 작년 1분기(1천577억원)의 절반 이하였고 2분기에도 33.7% 급감한 1천135억 원에 그쳤다.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증권사 실적 전망(컨센서스)에 따르면 18일 기준 카카오의 3분기 영업이익은 1천342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10.7%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미 다수 증권사가 카카오의 3분기 실적 부진을 예상하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삼성증권은 3분기에 카카오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6.8% 급감한 1천223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 주가를 6만2천원에서 5만4천원으로 낮췄다.

2021년 6월 장중 한때 17만3천원까지 올랐던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 6일 장중 4만600원까지 밀리며 신저가를 기록했다. 전날 종가 기준 주가는 4만1천800원이다.

증권가가 특히 주목하는 위험 요소는 구속된 임원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김범수 창업자에게까지 사법 리스크가 번질 경우다. 카카오뱅크[323410] 대주주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인터넷 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자)이 인터넷 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 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법 처벌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임원 개인의 비위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불법이 이뤄졌다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금고형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나오고 지분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송진영 기자

## 정부,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피해 민간인에 200만 달러 인도지원



가자지구 병원 참사 현장서 소지품 행거가는 소녀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

외교부는 19일 이번 지원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뤄지며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관련 기구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민간인 피해가 심화하는 것에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사태 해결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7일(현지시간) 충돌이 시작된 후 양측 사망자는 이스라엘 1천400여명, 팔레스타인 3천400여명 등 4천800여명에 달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개최한 회견에서 가자지구·서안지역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백현우 기자

국민의 경제생활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이 작은 꿀벌이  
이전 저희의 소중한 친구예요’

인천아름고등학교 양봉동아리 비키피즈(Beekipartz)

지구에서 점점 사라지는 꿀벌을 지키기 위해 학교 친구들과 모여서 양봉 동아리를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는 10개였던 꿀벌통이 이제 26개로 늘어났고 그만큼 많아진 작은 친구들 덕분에 뿌듯함과 기쁨도 커졌어요

처음에는 꿀벌한테 쏘일까 봐 무섭기도 했는데 요즘은 학교 밖에서도 꽃 사이에 날아다니는 꿀벌들을 보면 정말 소중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웃으니와요

앞으로도 직자만 소중한 꿀벌들을 지켜가고 싶어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To BEE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네번째 이야기

K-Bee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일정을 조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 함께 응원합니다

KB 금융그룹



답변하는 김동철 한전 사장

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전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에 대해서는 “한전이 (재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분까지 반납되고 있어서 당초 협약했던 대로 출연금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최희성 기자

한전의 송·변전망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송·변전망 구축을 국책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고, 곧 밟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송·변전망 건설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며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주민 수용성 타파 등을 해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했다.

/ 최희성 기자

## 한전 사장 “태양광 비리 시 해임 등 최고 수위까지 처벌”

### 국회 산업위 국감…“송변전망 구축, 정부가 해결해야”

김동철 한국전력[015760] 사장은 19일 감사원에서 적발된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 “앞으로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해임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비리가 적발됐지만 솔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취지의 한국의회망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사장은 “태양광 비리 근절과 관련해 서 지금까지는 처벌이 느슨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재적발 시에는 즉시 해임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전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에 대해서는 “한전이 (재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분까지 반납되고 있어서 당초 협약했던 대로 출연금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최희성 기자

# 이재명, '여의도 복귀' 임박…통합 행보로 리더십 굳힐까

내주 복귀해 '비명계 징계청원'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 결정할듯…'통합' 방점' 관측



단식 후유증으로 회복 치료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그가 여의도에 돌아와 내놓을 메시지에 당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징계 청원에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목이 쏠린다.

구속영장 기각·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암승을 통해 리더십을 공고히 했지만, 이 문제는 또 한 번 당내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복귀 시점이 다음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진대 최고위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다음 주에는 복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에선 이 대표의 복귀 시점이 이번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에 두 차

례나 출석하게 되면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잡힌 재판 일정은 '공직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1건(27일)뿐이다.

이 대표는 복귀 후 징계 청원의 당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가 다수인 최고위원들은 윤리심판원 회부를 보류한 채 이 대표의 복귀만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징계와 관련된 논의 시기를 훔드하자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이는 서둘러서 며칠 만에 결정하지 말자는 의미였다. 당무 복귀 후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가 비명계에 대한 징계보다는 통합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병상에서 내놓았던 최근 메시지처럼 복귀 후에도 당내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번 징계 청원과 별개로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친명계 지도부의 '해당(害黨) 행위자 징계' 요구까지 무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친명계 최고위원 다수는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불거진 비명계 의원들의 '이재명 탄핵' 발언 등을

해당 행위로 규정,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징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문제는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인 후임 지명자 최고위원 임명 문제도 계파 갈등을 재점화할 뇌관이 될 수 있다.

지도부는 당초 충청권·원외·여성 인사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사실상 낙점하고 이 대표에 추천하려 했으나 비명계 반발에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친명계인 박 전 구청장은 지금 비명계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이라며 "이는 내년 총선에서 비명계에는 공천장을 주지 않겠다는 신호가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23일부터 3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천300여개 기관 참여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3년 3회차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올해 치러진 훈련 가운데 가장 많은 2천30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충북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산불, 도시철도 사고 등 가을·겨울철에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 등은 도시철도 화재와 탈선에 대응하는 훈련을 치른다. / 박민준 기자

문화재청과 경남 양산시는 사찰 인근 대규모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훈련을 한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시설 화재 발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응과 발전설비 복구에 대한 훈련을 한다.

행안부는 기관별 훈련 평가 후 우수·보통·미흡 기관을 선정해 세부 평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경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과 1차 대응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민준 기자

## 김한길 “어디 안가니 동요하지 말고 일하라”…총선 역할론 일축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견해제의 듣는 윤석열 대통령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너무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통합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너무 칭찬을 받아서 어깨가 더 무겁다”라고 도 했다.

김 위원장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신당을 창당하거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될 경우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을 부인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통합위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주재한 만찬에서 “국민통합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달라”며 국민통합위 정책 제안 보고서 100부를 당에 배포하라고 지시한 장면은 김 위원장 역할론이 세간에 떠돈 계기 중 하나가 됐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

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부터 합류해 최근에도 독대하며 정치적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준비위원장과 공동대표까지 맡을 만큼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도 갖춘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는 ‘책사’로 통하기도 한다.

김 위원장이 부인은 했지만, 연말까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한 국민의힘도 차별화에 실패하는 등 총선 전망이 어두울 경우 김 위원장 역할론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는 25~26일 국민통합위 2기 출범에 맞춰 수도권에서 워크숍을 열고 앞으로 다룰 의제와 안건 등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김강우 기자

## ‘줄리 의혹’ 열린공감TV 전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유흥업소 접객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은 1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줄리 의혹은 허위 사실로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제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발언했다고 적시했다”며 “그런 적이 없으며, 일반 여성으로서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만 보도했다”고 했다.

또 “2021년 10월경 첫 번째 줄리 의혹 보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리라는 것을 예견해 낙선목적으로 허위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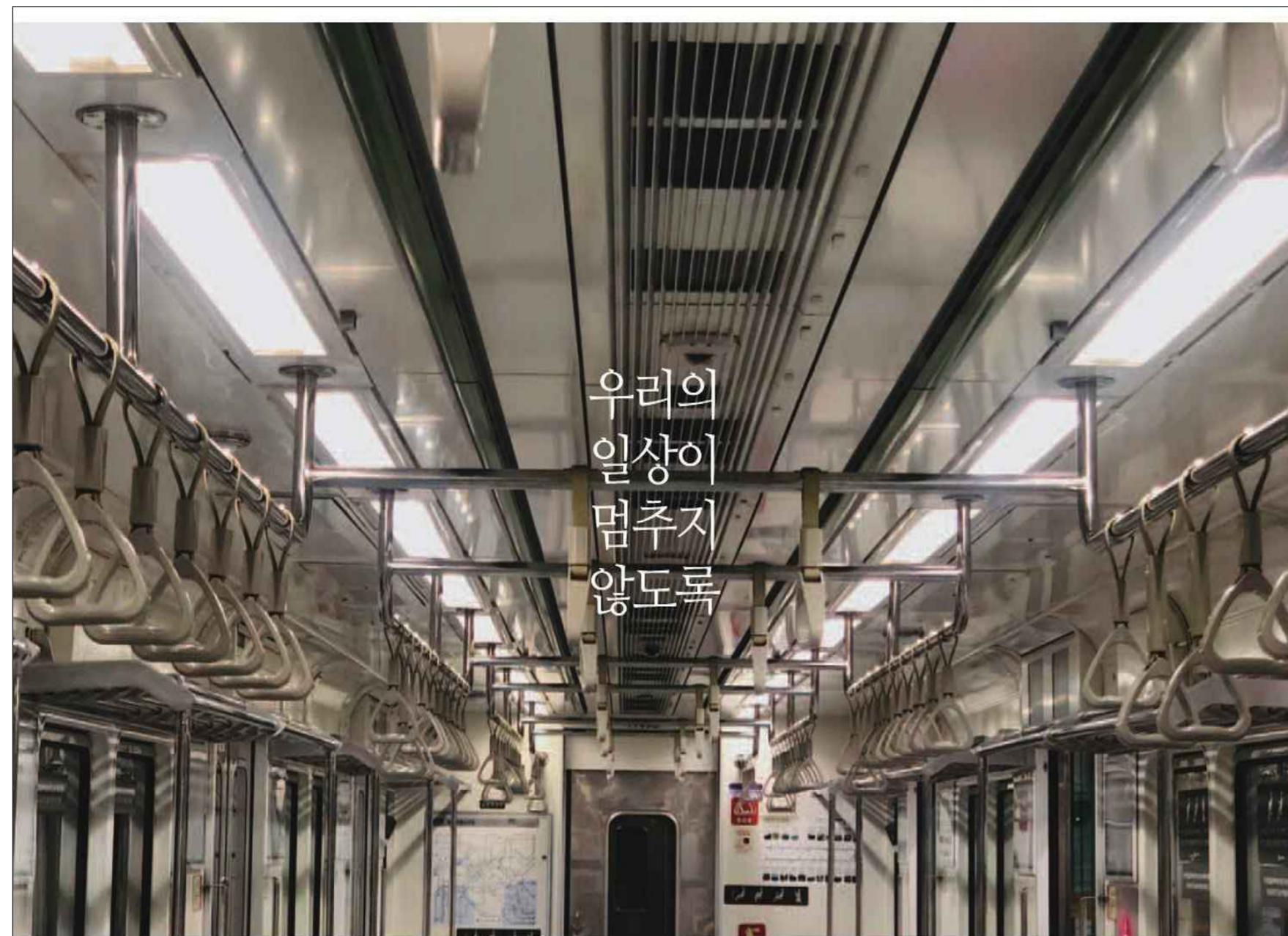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안해숙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은 “내가 그 아이(김 여사)를 본 것도 수십 번인데 아무런 증거 없이 영터리 기소를 했다”며 “법정에 서 있는 자체가 희극”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접객원·접대부·밤의 여왕”이라는 취지의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 사실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대선 전 당시 윤 후보를 떠나뜨릴 목적으로 유튜브에서 ‘김건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안씨의 인터뷰 등을 내보낸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같은 주장을 리디오 방송에서도 반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송진영 기자

우리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오늘.  
소중한  
전기  
로부터  
시작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우리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지방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

##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 바꿔 지역의료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종주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KTX 첫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종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 종인건비는 연 1~2% 늘려왔다. 이 때문에 민간·사립대 병원과 보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 지역 내에서 ‘골든아워’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계속 강화해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디지털·바이오 R&D 혁신도 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원 (KAIST)과 포항공대의 ‘연구 중심 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의사과 학자 양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다양

한 방향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중증·최종 치료 역량을 키우고,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이끌도록 서울대 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국가중 앙병원’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 행위 대가)도 올린다. 기존에 추진하던 방안 외에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정부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강화해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디지털·

바이오 R&D 혁신도 꾀한다.

대한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에 대한 적시 치료를 지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도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늘어난 의대생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 피해구제와 함께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법을 개정, 올해 말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사하고 발생 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린다. 의료인 행사처 벌칙과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이들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법이나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진성원 기자



##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아 브로커, 혐의 인정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산 뒤 300만원을 받고 다시 판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4·여)씨의 변호

인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 신생아 팔을 판 친모 B(26) 씨도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정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B씨 팔을 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2·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자신을 미혼모라고 속 었다”며 “아이를 넘겨받는 대가는 아니라 후원금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팔을 C

씨에게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시간 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 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비 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의 팔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피해자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 오은주 기자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미래를 기대해

**KOB** Anniversary  
2018 -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5주년

놀라운 도약의 지난 5년, 그리고 더 크고 더 높게 성장해  
新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앞으로의 50년을 기대해.

한국해양진흥공사  
2030 미래상

01 총 자산  
20조원

02 선박금융  
공급 1위

03 스마트 해운  
물류  
통합 플랫폼 구현

04 ESG 공공부문  
최우수 통급

## “안전한 헬리원 축제” 이태원·홍대 등 합동 상황관리 나선다

### 행안부, 27일부터 전국 지자체·경찰청 등과 사전 점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를 찾아 인파 밀집 관리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 이태원과 홍대 거리 등 헬리원 축제 기간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점검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고 행정안전부가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을 비롯해 17개 시도 등 26개 기관 관계자와 헬리원 대비 인파관리 대책 회

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10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연세간 인파 밀집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과 홍대·명동 거리, 대구 동성로 등 4개 지역에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사는 심하거나 좁은 골목을 중심으

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요원 배치나 일방통행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계획을 미리 세워 소방·경찰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황공유와 현장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순간적인 인파밀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징후 발생 즉시 이동식 확성기, 사이렌, 재난문자 등으로 시민들에게 위험 상황과 행동요령을 안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과 홍대에는 26일부터 이를간 사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헬리원 축제에 여러 곳에서 많은 인파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에서는 인파밀집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해 미비한 부분을 즉시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민경준 기자

## 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계획 없어”

### 신원식 장관 “스마트폰 허용, 국방 허무는 길” 과거 발언 우려에 해명

국방부는 19일 신원식 국방장관의 과거 발언에 따라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가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돼 현재 시범운용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019년 있었던 발언이다.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말씀하신 건데 ‘문재인 정부의 외출 권장과 스마트폰 허용정책이 국방을 허무는 길이다’ 주장했

다”고 말했다. 이에 장관 후보자였던 신원식 장관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기억이 난다”고 시인했다.

전하규 대변인은 “개인 SNS 방송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 군문화’에 관해 언급했던 신원식 장관의 발언은 우리 군이 보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 군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는 장병 소통과 복무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박성현 기자



# “사형 마땅할수 있지만…” 동거인 등 살해 이기영 2심 무기징역

재판부 “형 평가 많이 고민했다…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

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재판장)는 19일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며 “재판부도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검찰로 이송되는 이기영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했다.

이씨는 작년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 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59)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씨는 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 서종익 기자



충남 보령 해상 밀입국 선박에서 발견된 총알 관통 흔적

## 유아인 불구속기소…프로포폴 등 4종 마약 181회 투약 혐의



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을 모면했다. 경찰이 5월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6월9일 경찰에서 유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은 뒤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 지난달 18일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

/ 이진성 기자

## 조민 측 “입시비리 혐의 인정하지만 검찰, 공소권 남용”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조씨는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입장문을 바꾼 것이다. 검찰의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장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장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 박소희 기자

최근 선박을 타고 충남 보령 해상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일당 사건과 관련, 중국 해양당국이 용의자 5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다.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양경찰국이 보령 해상 밀입국 사건 용의자 5명을 추가로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일 중국 현지에서 붙잡힌 용의자 1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모두 6명이 검거됐다.

30~40대인 이들은 중국에서 한국까지 운항할 선박을 섭외하는 등 밀입국 준비 과정에만 관여한 용의자들로 5명은 남성, 1명은 여성으로 파악됐다. 중국 해경국이 발견한 밀입국 선박 조종실에는 선박용 레이더, 위성항법장치, 통신기 등 항해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미에 장착된 엔진 4개 중 1개에는 선박이 중국 해역으로 도주할 당시 우리 해경의 경고 사격으로 총알이 관통된 흔적도 발견됐다. 중국 해경국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현지 용의자를 총 8명으로 특정하고, 선박을 조종한 선장과 선원 등 나머지 2명을 죄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에 밀입국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 해경국과 긴밀히 협조해 밀입국 시도가 중국 해역에서 미리 차단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시 53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3.7km 해상에서는

## “왜 험담해”…흉기 휘둘러 지인 살해한 50대 체포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분께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50대 B 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 등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등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돌아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 씨 외에 다른 한 명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김희성 기자

## T7 Shield

압도적 내구성의 포터블 SSD

연속 읽기 성능 1,050MB/s | 연속 쓰기 성능 1,000MB/s | IP65 등급 | 방수·방진 | 최대 3m 낙하 | 충격 보호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8시간 반쪽 일정' 이스라엘 편든 바이든…중동정세 대혼란

이슬람권 “미국에 죽음을” 분노 폭발…확전 우려 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오른쪽)이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운데 원쪽)의 환영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활주로에 영접 나온 네타냐후 총리와 포옹하며 연대 의지를 보여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찾아 전폭적인 지지 의지를 겨듭 강조한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현지 정세가 대혼란에 빠진 양상이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에 대해 8시간이 안 되는 일정에서 내세울 만한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이날 이스라엘에 이어 요르단 암만을 찾아 요르단 국왕,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이집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고 암만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제거하는 데 주변국의 동의를 얻고 확전 방지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가자지구 중심의 한 병원에서 대규모 폭

발이 발생해 수백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직후 요르단이 미국 등과의 4차 회담을 취소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직접 만나 논의할 기회는 무산됐다. 이번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가 알려진 직후 중동 국가들은 잇따라 분노를 표시했고 곳곳에서 반이스라엘, 반서방 규탄 시위가 열렸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방문에서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가 이스라엘과 무관하며 가자지구 테러 그룹의 로켓 오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병원 참사를 두고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 소행으로, 이스라엘 측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 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오발 사고로 각각 규정하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이 분명한 메시지를 내기

까지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국가 안보팀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책임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지만, 초기 정보 분석 결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나왔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자체를 재고했을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이스라엘-하마스 간 충돌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측 관리들만 만나면서 당초 이번 중동 방문의 또 다른 목적이었던 확전 방지 노력 등과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당장 이란은 국영 TV를 통해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 볼라, 시리아와 이라크 무장단체,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조직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지도가 보이는 화면을 내보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전선이 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NYT는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 미국에 대한 반감과 분노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18일 수백 명의 시위대가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며 돌을 던지고 인근 건물에 불을 질렀다.

가자 병원 참사 이전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하마스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미국이 지원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로 보는 시각이 다수였으며 “미국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도 들려왔다 NYT는 전했다.

/ 손현수 기자



총불당(CP) 부대표인 탁 세타

## 훈 마넷 ‘정적 탄압’ 대물림하나 반대파, 선동 혐의로 징역형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부친 훈센 전 총리의 반대파 탄압을 담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놈펜 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촛불당(CP) 부대표인 탁 세타에 대해 선동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탁 세타는 과거에 양민 대학살을 저지른 크메르루즈 정권 종식을 계기로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올해 1월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캄보디아 당국은 과거사를 왜곡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탁 세타를 기소했다.

훈 마넷의 부친인 훈센 전 총리는 1979년 1월 7일 크메르루즈 정권이 베트남의 침공으로 전복되자 캄보디아인민공화국 수립을 주도했다. 이어 1981년 부총리 겸 외교장관직에 오른 뒤 1985년 1월 14일 32세의 나이로 총리에 선격 취임해 38년 간 캄보디아를 통치했다.

캄보디아인민당(CPP)은 비롯한 현 집권 세력은 크메르루즈 정권이 종식된 날을 ‘승전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올해 1월에도 탁 세타는 부정 수표 발급 혐의로 체포된 뒤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8개월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은 캄보디아 정권이 정치적 이유에서 반대파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훈 마넷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반대파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23일 실시된 총선에서 CPP는 전체 125석 중 12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일당 지배 체제를 공고히 했다.

이어 새로 구성된 국회가 훈센 당시 총리의 장남인 훈 마넷을 신임 총리로 선출하면서 권력 대물림 작업이 완료됐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훈센 정권을 상대로 “정치적 이유에서 반대파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 신재일 기자

## 431억→271억→‘0’…‘오염수 방류’에 日수산물 中수출 9월 전무

### 작년 중국 수출액 약 7천900억원…오염수 방류 후폭풍 ‘심화’

중국이 지난 8월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문제 삼아 일본 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9월 수입액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일본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전날 발표한 9월 무역통계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 수치가 기록되지 않아 사실상 수입이 없었다.

중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7월 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해 사실상 수입 제한을 시작했고 8월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에 맞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7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33.7% 감소한 2억3천451만위안(약 431억원), 8월 수

입액은 67.6% 줄어든 1억4천902만위안(약 271억원)에 그친 데 이어 9월은 사실상 수입 실적 자체가 없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871억엔(약 7천900억원)이었다. 러시아 정부도 이달 16일 중국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양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중국의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조치로 일본산 가리비의 중국 내 가공도 불가능해지자 일본 정부는 자국 내 교도소 수용자에게 가공 작업을 시키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농림수산성과 법무성이 전날 집권 자민당 간부에게 가리비 데기 벗기기 등 가공 업무를 교도소 수용자에게 가공하고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약 200명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스타벅스 노조는 해당 계시물을 40분 안 되게 걸려있다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스타벅스 노조 지역 본부들의 계시물과 리트윗은 18일에도 여전히 엑스에서 볼 수 있다. 스타벅스 노조는 시족의 요구에 대해 “스타벅스는 중동에서 진행 중인 비극을 반노조 캠페인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해당 계시물이 수백명의 고객을 화나게 하고 자사의 평판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해당 계시물이 수백명의 고객을 화나게 하고 자사의 평판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직원 노조인 ‘스타벅스 노

## 스타벅스, ‘팔레스타인 지지’ 게시물 올린 노조 고소



스타벅스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초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계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직원 노조를 고소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스타벅스는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내면서 노조에 ‘스타벅스 노동자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스타벅스 로고와 유사한 녹색 원형 로고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스타벅스는 해당 계시물이 수백명의 고객을 화나게 하고 자사의 평판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직원 노조인 ‘스타벅스 노

살해하고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약 200명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스타벅스 노조는 해당 계시물이 40분 안 되게 걸려있다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스타벅스 노조 지역 본부들의 계시물과 리트윗은 18일에도 여전히 엑스에서 볼 수 있다.

스타벅스 노조는 시족의 요구에 대해 “스타벅스는 중동에서 진행 중인 비극을 반노조 캠페인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임지훈 기자

## 지구의 푸른 미래, LG의 클린테크로 켜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 미래, 같이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 가치 만들기,  
LG가 함께하겠습니다.

LG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파트너사이야기 #유독1주년 #새로운 친구발견



**한정된 고객에서 벗어나  
시장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QR 코드 스캔하고, 당신이 만난  
유플러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존에도 유아 훔스쿨링 키트 정기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과의 제휴는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에 도전해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저희는 이미 가입한 한정된 고객만을 위한 접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유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키즈가구 타겟 마케팅도 해볼 수 있었어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유독이 저희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 셈이죠~

'U+ 파트너사 키두 정세경 대표님'



이런 생각, 정세경님의  
**WHY  
NOT?**

유플러스 유독



# 한은, 기준금리 3.5%로 6연속 동결…안갯속 경제에 ‘관망’

“완만한 물가 둔화 속도·가계부채 증가 등에 긴축기조 유지”

한국은행이 지난 2·4·5·7·8월에 이어 19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끊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원/달러 환율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금리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최근 소비 부진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뚜렷한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일단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고조된 미국의 추가 통화 긴축 압력이 최근 다소 줄어든 점도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여유를 줬다.

만약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미 너무 많이 뛴 미국 장기 채권 금리, 근원 소비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 하락,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경기 불안 등을 고려해 연내 0.25%포인트(p)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으면, 당분간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2.0%p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와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상승률이 올해 말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높아진 국제 유가와 환율의 파급 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에 따른 물가 상

SK telecom

T roaming

# 혜택이 넘치는 가족로밍의 탄생

가족 중 1명만 baro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만 추가하면  
더 넉넉해진 데이터를 온 가족이 공유하고 온 가족 baro 통화, 문자 무료



## 더 넉넉해진 baro 요금제 혜택

- 혜택1. 전 세계 188개국에서 내 폰 내 번호 그대로
- 혜택2. baro 통화, 문자 무료
- 혜택3. 0 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님 상시 50% 할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WAVE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자는 기본 제공, T 전화 앱을 통해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 로밍 요금 미발생(한국 및 방문국 외 다른 국가로 발신 제외)  
0 청년 요금제 가입 시 50% 할인 자동 적용 | 할인 횟수 제한 없음 | SK텔레콤 가족 결합 상품에 가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증명 필수 |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 참고



## ‘지하철 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 노조 “오세훈에 대화 요청”

다음달 서울 지하철 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9일 사측의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결자해지’를 위해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 1노조는 이날 서울 시청역 앞에서 조합원 약 2천명(노조 추산, 경찰 추산 1천 500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서울시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안에 반대하며 올해 안에 안전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내달 9일 총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1노조 결의대회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은 결의대회에서 “정부여당은 부자감세 와 재벌특혜 정책만 시행하더니 민영화

구조조정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고통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도 구의역 사고, 신당역 사건,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며 “안전인력을 더 충원해도 부족한데 2천212명을 줄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 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든 좋으니 오세훈 시장께 직접 대화를 요청한다. 직접 만나 대화하고 담판하자”며 “서울시와 공사의 인력 감축을 저지하고 안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희찬 기자



###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 가을운동회 등 이벤트 푸짐

“올가을 아이들의 최고 놀이터는 전남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이에요.”

지난 13일 개막한 갈대축제는 오는 주말을 앞두고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한나절을 보내기에 충분하고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본계획 재수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도시계획, 산업 등 8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 자문단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 경제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새만금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재수립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 책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차수현 기자

이 상품으로 지금 놀거움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골프를 응용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인 워터골프는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을 것으로 기록해 주제전진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가족 나들이를 원하는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존도 운영되며 아빠랑 엄마랑 놀이터에는 잔디밭과 코스모스밭이 있어 깊어 가는 가을의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다.

주 무대에선 줄바댄스교실과 21일 오후 6시30분 레전드 가요대전 공연이 펼쳐져 팬들과 갈대축제장을 찾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호남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장은 19일 “주말까지 계속되는 갈대축제가 가족동반 프로그램 등으로 많은 재미와 추억을 선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양희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 민간투자 10조원 유치 목표…현재 6.6조원 유치

### 이차전지 기업 14곳 연내 투자 협의…용지 확보·규제 개선 추진

새만금개발청은 연말까지 민간투자 10조원 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치겠다고 19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업단지에 LG화학, LS 그룹 등 6조6천억원 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 협의 중인 해외기업이 추가로 1조 2천억원을 투자하면 이달 말까지 모두 7조8천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

새만금청은 이 밖에 이차전지 기업 14곳과 연내 투자 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상 기업에는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기업도 포함돼 있어 산단 입주기업의 국가·품목 다양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새만금청은 기대했다.

새만금청은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용지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매립이 끝난 새만금 산단 1·2·5·6 공구 분양률은 82%에 달하며, 나머지 18% 부지도 투자 협의 중이어서 부족한 산업 용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청은 우선 2025년 착공을 예정 했던 3·7·8공구 매립 공사를 이달부터 시

작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매립을 완료하면 위치·면적 조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용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새만금청은 정부에서 재수립을 추진하는 새만금 기본계획(MP)의 핵심 키워드가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해 새만금을 전략적 수출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는 구상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만금청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

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본계획 재수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도시계획, 산업 등 8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 자문단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 경제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새만금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재수립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 책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차수현 기자

축제장을 방문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색 워터 체험 행사인 워터골프이벤트도 21일 오후 2시 시작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에어팟 프로, 골프용

품, 어린이 문구세트, 강진문화상품권 등

/ 양희진 기자

## ‘매를 부려 사냥을’…성동구, 응봉 매사냥 축제 21일 개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제3회 응봉 매사냥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 축제는 2021년 시작됐으며 과거 응봉산이 매 사냥터로서 응방(매 사냥·사육 관청)이 설치됐던 역사를 주제로 기획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응봉동의 유래가 된 응봉산은 매가 많이 살아 ‘응’(鷹, 매 응)자를 붙여 응봉이라 불렸다.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중랑천 인근 응봉교 하부에서 무형문화재 박용순 응사가 매사냥을 시연한다. 응사는 매를 부려 사냥하는 사냥꾼을 칭하는 말로 전국에 단 2명뿐이다. 축제의 흥을 더할 마술쇼와 가요무대도 마련된다. 부대행사로 전통 의상 대여와 함께 포토존을 운영하고 캐리커처와 할쏘기 등 전통놀이 한마당도 꾸며진다. 사냥이라는 행사 주제와 연계해 같은



2022년 응봉 매사냥 축제에서 매를 손 위에 올려놓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원쪽)

날 조선시대 왕의 사냥 행차를 재현하는 태조 이성계 축제도 더불어 즐길 수 있다.

박일 응봉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이번 행사는 예년과 달리 마을 축제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 사냥 의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역사를 되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서정미 기자

## 창원시, 방산·항공기업 수출개척 지원…ADEX 2023 창원관 운영



경남 창원시는 ‘서울 ADEX 2023’에서 창원공동관을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 ADEX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다. 올 해 역대 최대인 35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한다.

2019년부터 ADEX에 참가하고 있는 창원시는 이번에 가장 큰 규모로 창원관을 운영한다.

창원관은 창원국가산단 2.0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관과, 한성에스엔아이, 창원일렉tron 등 지역 내 방산·항공기업 9개사가 참여하는 부스로 구성됐다.

창원시는 ADEX 기간 방위·항공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 18일에는 인도 방산지역 특구 관계자 및 국영 방산 기업 대표 등을 만나 지역 내 방산기업과 여러 정보를 교류 했다.

또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 관계자와 함께하는 기업간 담회도 진행했다.

이날은 호주 방산기업들이 창원관을 찾아 기업들과 비즈 니스 매칭 시간을 보냈다.

하승우 전략산업과장은 “K-방산 글로벌 훈풍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산·항공기업들의 제품 경쟁력 향상과 수출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NH Card

함께하는 100년 농협

zgm. 고향으로 체크카드



zgm. 고향으로 체크카드 주요 서비스

전국 오프라인 가맹점 이용 시  
최대 0.6% NH포인트 적립

구분 할인율(%) 주일(일주일)  
기본 서비스 국내예 0.2% 국내 0.4%, 해외 0.2%

우대 서비스 - 전국 오프라인 가맹점 이용 시 0.6%

고향사랑 기본 서비스  
고향사랑 기본 서비스는 카드를 발급 받은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내·해외 이용 가맹점 0.2% NH포인트 기본적립

\* 전월말자 조건 및 적용방법은 없습니다.

\* 해외 이용 시 국제인터넷수수료 및 해외서비스수수료가 별도로 포함되어 청구되며, 자체화폐 사용료와 통화환율 변동 등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 NH포인트 이용 시 청구되는 카드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주말(토·일요일) 국내 이용 가맹점 0.2% NH포인트 추가적립

\* 전월말자 203일 이상 시 적용되는 적용방법입니다.

\* 카드 사용 등록 일로부터 그 다음날 일까지는 청구일자 미루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주말(토·일요일) 국제 이용 가맹점 0.2% NH포인트 추가적립

\* 국제인터넷 이용 시 청구되는 카드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국제인터넷 이용 가맹점 0.2% NH포인트 기본적립

\* 국제인터넷 이용 시 청구되는 카드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국제인터넷 이용 가맹점 0.2% NH포인트 기본적립

\* 국제인터넷 이용 시 청구되는 카드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국제인터넷 이용 가맹점 0.2% NH포인트 기본적립

\* 국제인터넷 이용 시 청구되는 카드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국제인터넷 이용 가맹점 0.2% NH포인트 기본적립

\* 국제인터넷 이용 시 청구되는 카드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국제인터넷 이용 가맹점 0.2% NH포인트 기본적립

\* 국제인터넷 이용 시 청구되는 카드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국제인터넷 이용 가맹점 0.2% NH포인트 기본적립

\* 국제인터넷 이용 시 청구되는 카드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국제인터넷 이용 가맹점 0.2% NH포인트 기본적립

\* 국제인터넷 이용 시 청구되는 카드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국제인터넷 이용 가맹점 0.2% NH포인트 기본적립

\* 국제인터넷 이용 시 청구되는 카드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국제인터넷 이용 가맹점 0.2% NH포인트 기본적립

\* 국제인터넷 이용 시 청구되는 카드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국제인터넷 이용 가맹점 0.2% NH포인트 기본적립

\* 국제인터넷 이용 시 청구되는 카드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국제인터넷 이용 가맹점 0.2% NH포인트 기본적립

\* 국제인터넷 이용 시 청구되는 카드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 당신의 경험이 최고의 경력

삼성생명 GFC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움직여 본 경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을 이끌어 본 경험  
위기에 맞서 헤쳐나갔던 경험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의 경험으로 답하세요

삼성생명 GFC에 지원하세요



삼성생명 GFC(Group Financial Consultant)는  
단체보험 컨설팅으로 기업복지를 증진시키고  
임직원 보장/은퇴설계를 제안하는 기업보험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본 광고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광고임  
준법감시필 23-2320호 (브랜드광고파트, 2023.10.17~2024.10.16)

## 유인촌 장관, 잇단 현장 행보…문화의 달 맞아 신안·광주 방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월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10월 21일)을 맞아 20~21일 전남 신안과 광주 등 지역문화 현장을 찾는다.

유 장관은 21일 문화의 달 행사가 열리는 신안군 자은도를 방문해 문화의 달을 축하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 장관은 2021년 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군 퍼플섬을 둘러보고, 문화의 달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문화대상'에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지역문화대상에는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하회마을, 대전성심당 등 세 곳이 선정됐다.

유 장관은 행사 하루 전날인 20일에는 남원 국립민속국악원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

유 장관은 "지역이 가진 소중한 문화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세계인을 사로잡을 또 하나의 K-콘텐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던 중 단상에서 내려와 직원들 가까이에서 밝힌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문화 기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한 그는 지난 18일에는 강원도를 방문해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시설을 점검했다. / 박정균 기자



### 4년만의 보은 대추축제 '대박 행진'

#### 이번 주말 절정

충북 최대 농산물 축제로 발돋움한 보은 대추축제가 연일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축제장인 보은읍 벤들공원은 달달한 대추 향기에 이끌려 나온 인파로 가득 찼고, 속리산 일원서 생산된 청정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총도 인기다.

매년 대추 수확철에 맞춰 열흘간 축제를 여는데, 속리산 단풍관광 등이 맞물리면서 한 해 70만~80만명이 찾고 있다.

지난 13일 개막한 올해 축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4년만에 열렸다.

개막 후 첫 주말과 휴일인 14~15일에는 20만명 이상이 축제장을 행사장을 찾으면서 주변 도로 등이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보은군은 이번 주말 축제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훈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 1670-6114)까지 개설해 손님 맞을 채비에 나서고 있다.

보은군은 "대추 한 입, 감동 두 입"이라 는 슬로건에 맞춰 이번 축제를 감성무대로 만드는 중이다.

연일 다양한 클래식과 버스킹 공연을 하고, 드넓은 국화동산도 조성했다. 수상 레저와 베짜기체험을 비롯해 공예체험 부스도 다양하다. / 김채원 기자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폐막 사흘 앞두고 관람객 목표 132만명 달성

### 132만번째 관람객에게 마스코트 인형 등 감사선물 증정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개막 29일째에 애초 목표한 관람객 132만명을 달성했다.

19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관람객이 누적 132만 279명을 기록했다.

고성군 캠버리장을 찾은 방문객은 57만 4천351명이고, 설악원 4개 시군 부행사장 관람객은 74만 5천928명이다.

개막 18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최근에도 하루 평균 4만명 가까운 관람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

조직위는 올가을 태풍 등의 자연피해가 없는 데다 솔밭을 전망대와 푸른지구관 대형미디어아트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목표 관람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조직위는 이날 132만번째 관람객 이남혁 씨에게 마스코트 인형 등을 선물했다. 지난 달 22일 개막한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오는 22일 폐막한다.

조직위원회장인 김진태 강원지사는 "산림엑스포 행사장에는 조직위 직원과 운영 인력, 자원봉사자, 경찰, 소방, 보건의료 등 많은 분의 노력이 담겨있다"며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 치매가 걱정된다면, 지금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세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1



**치매조기검진**  
만 60세 이상 누구나,  
단계별 치매검진 제공  
검진결과에 따라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관련 서비스 연계

2



**치매환자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실증 예방 등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3



**치매가족지원**  
치매가족(보호자) 상담  
치매가족 교실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부산 목욕탕 화재서 다친 소방관 10명 공상 승인…최단기·최다

소방청은 올해 9월 부산 목욕탕 화재에서 다친 소방공무원 10명이 최단기, 최다 인원으로 공무상요양(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소방대원들은 9월 1일 부산 동구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활동을 벌이던 중 2차 폭발이 일어나 10명이 다쳤다.

이 중 2명은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소방청은 부상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했다.

그 결과 9월 11일 공상 신청 후 14일 만인 9월 25일 최종 승인 결정이 났다. 처리일이 평균 60일인 것을 고려하면 최단기로, 10명이 동시에 된 것 또한 최다인원 승인 사례다.

소방청은 소방 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겪는 업무 연관성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 의학적·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 재해보상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 건수는 1천261건으로, 현재까지 348건이 처리됐다.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은 28.4%로, 전년 같은 기간의 20.7%보다 7.7%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 보완율은 62.3%에서 32.4%로



부산 목욕탕 화재로 입원 중인 소방관 위로하는 남화영 청장

감소했다. 시간이 단축되고 전문성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 3분기 공무상요양 승인율은 83.48%로 지난해 같은 기간(81.03%) 대비 2.45%포인트 증가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다친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과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상 명백한 부상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증 절차 간소화 및 공상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남현호 기자

## "면사포 한 풀었어요" 옥천서 노부부 5쌍 합동결혼



충북 옥천에 사는 유모(80) 할머니는 젊은 시절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 없이 가정을 꾸렸다.

그후로도 몇 차례 뒤늦은 혼례를 계획했지만 번번이 일이 꾼여 무산됐다.

면사포에 대한 설움이 있던 유 할머니가 19일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평생의 한을 풀었다.

옥천로타리클럽은 이날 70~80대 노부부 5쌍의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 / 김민재 기자

유 할머니를 비롯한 5명의 신부가 곱게 화장을 하고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백발의 남편들도 턱시도 차림으로 잔뜩 멋을 내고 신부 옆에 섰다.

결혼식장은 옥천농협이 무상 제공했고, 의상과 사진 촬영도 여러 기관단체에서 후원했다.

유 할머니는 "팔순에 면사포를 쓰는 게 민망하지만, 60여년 만에 소원을 이뤘다"고 환하게 웃었다.

결혼식을 주선한 윤준호 옥천로타리클럽 회장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애쓴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현대자동차 2023 EV 세일페스타

## 전기차는 올해가 타이밍



※ EV 세일페스타 10월 퀴즈 이벤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2023 EV 세일페스타

기간 2023년 10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

**대상 차종 및 혜택** 아이오닉 5 / 아이오닉 6 최대 560만 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320만 원 상당의 혜택 제공(추가 구매보조금 포함 시)

**HYUNDAI**

Bluehands  
화정관리 서비스는 blue 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 김하성 MLB 골드글러브 끼나…2루수·유틸리티 최종 후보

올해 미국프로야구(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가장 빛난 선수인 김하성(28)이 역대 한국인 베이비리그 최초로 포지션별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글러브 수상 가능성을 높였다.

김하성은 19일(한국시간) 발표된 2023 롤링스 골드글러브상 내셔널리그 포지션별 최종 후보 두 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후보는 포지션당 3명으로 압축됐다. 김하성은 2루수 부문에서 니코 호너(시카고 컵스), 브라이언 스토프(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쟁한다.

김하성은 또 유틸리티(만능) 부문에 도 후보로 나서 무기 베츠(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올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춘 한국계 토미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수상을 다퉐했다.

베츠는 우익수 부문 수상 후보에도 포함됐다.



밝은 모습으로 귀국하는 김하성

MLB닷컴은 김하성과 호너, 스토프가 모두 소속팀이 대형 유격수를 영입한 바람에 2루로 옮겨 골드 글러브 수상 후보에 오른 공통점을 지녔다고 소개했다.

컵스는 댄스비 스완슨, 필라델피아는

트레이 터너, 그리고 샌디에이고는 산더 르 보하르츠와 각각 계약했다.

스토프와 호너는 평균대비아웃기여(OAA) 수치에서 각각 +16, +15를 기록했고, 김하성은 2루수로 +7, 전체 포지션을 아우른 OAA는 +10으로 평가받았다.

김하성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3루수, 2루수, 유격수 등 1루수를 제외한 내야 전포지션 수비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견고함을 자랑한다는 데 있다.

김하성은 우익수, 2루수, 유격수 세 포지션을 뛴 베츠, 역시 2루수, 외야수, 유격수 세 포지션을 넘나든 에드먼과 유틸리티 부문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30개 구단 감독과 팀당 최대 6명으로 이뤄진 코치진의 투표와 미국야구연구협회의 수비 지표를 합쳐 골드 글러브 수상자를 결정한다.

코치진의 투표가 75%를 차지해 통계 수치인 수비 지표(25%)를 압도한다. 김하성이 수치에서 뒤졌더라도 코치진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김하성의 수상 여부는 우리 시간 11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판가름 난다.

/ 최준용 기자



18일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경기. 득점에 성공한 흥국생명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 김연경 23점·엘레나 22점…흥국생명, 혈전 속 현대건설에 승리

흥국생명이 혈전 끝에 현대건설을 꺾고 2023-2024 V리그 여자부에서 가장 먼저 2승을 챙겼다.

흥국생명은 18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 방문 경기에서 현대건설에 세트 스코어 3-2(15-25 25-12 25-21 21-25 15-12)로 승리했다. 우승 후보답게 양 팀은 5세트 접전을 벌였다.

흥국생명은 김연경(23점)과 엘레나 브라제노비치(22점·등록명 엘레나)의 측면 공격을 앞세웠고, 현대건설은 미들 블로커 양효진(17점)과 이다현(7점)의 높이에 모마 바소코 레티치아(17점·등록명 모마)의 측면 공격으로 맞붙었다.

블로킹 득점은 현대건설이 14-7로 앞섰지만, 서브 에이스는 흥국생명이 7점으로 2개에 그친 현대건설보다 많았다.

공격 성공률은 흥국생명(35.67%)이 현대건설(34.28%)을 근소하게 앞섰다.

마지막 5세트도 치열했다. 흥국생명이 9-10에서 김연경의 오픈 공격으로 동점을 만들자, 현대건설은 양효진의 빈 곳을 노린 연타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엘레나의 백어택으로 균형을 맞춘 흥국생명은 이원정이 위파워 시동(등록명 위파워)의 퀵 오픈을 블로킹해 역전에 성공했다. 박은서의 서브가 라인 밖으로 벗어났지만, 김연경이 퀵 오픈으로 후배의 실수를 만회했다.

경기 내내 현대건설 미들 블로커에게 밀렸던 흥국생명 이주아가 모마의 백어택을 거뒀다.

을 가로막으면서 흥국생명은 14-12,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다.

위파워의 오픈 공격을 수비로 걸어낸 흥국생명은 엘레나가 오픈 공격을 꽂아 넣어 올 시즌 현대건설과의 첫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고도 챔피언결정전에서 한국도로공사에 패한 흥국생명은 14일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한국도로공사를 꺾었고 라이벌 현대건설마저 놀랐다.

15일 폐막전에서 승리했던 현대건설은 흥국생명의 벽은 넘지 못했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우리카드가 새로운 해결사 마테이(등록명 마테이)과 토종 주포로 성장하는 김지한의 조화로 현대캐피탈을 세트 스코어 3-0(25-17 25-19 26-24)으로 꺾고 역시 개막 2연승을 거뒀다.

15일 삼성화재와의 시즌 첫 경기에서 3-1로 승리한 우리카드는 두 번째 경기에서도 승점 3을 챙겼다.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은 개인 통산 275승(214패)째를 거둬, 신치용 전 삼성화재 감독이 보유한 V리그 사령탑 최다 276승(74패)에 1승 차로 다가섰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14일 대한항공과의 개막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패했다.

이날 우리카드에서는 마테이가 64.86%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27점을 올렸고, 김지한도 10점(공격 성공률 61.54%)으로 힘을 보탰다.

/ 서정미 기자

## A매치서 다친 네이마르,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결국 수술대에



우루과이와의 경기 중 부상으로 실려 나가는 네이마르

게 되며 장기 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브라질 대표팀과 알힐랄에 모두 대형 악재다. 브라질은 네이마르가 도중에 빠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0-2로 완패하며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3위로 밀려났고, 11월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와 2연전을 앞두고 있다.

8월 네이마르를 영입하며 이적료만 9천만 유로(약 1천285억원)를 쓰고 1억 달러 넘는 연봉을 주는 것으로 전해진 알힐랄은 그를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네이마르는 알힐랄 유니폼을 입은 뒤 이번 시즌 사우디 리그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합해 5경기에 출전, 1골을 기록했다. 네이마르는 선수 생활 내내 유독 짙은 부상에 시달렸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소속이던 올해 3월엔 발목 수술을 받아 오래 자리를 비운 바 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때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친 뒤 한국과의 16강전을 통해 복귀했고, 2018년과 이듬해엔 오른발 부상으로 약 3개월씩 결장한 적도 있다.

/ 권정석 기자

다. 네이마르는 전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 경기에 출전했으나 전반 막바지 다쳤다.

브라질축구협회(CBF)는 19일(한국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네이마르가 검사 결과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반월판이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속 구단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도 수술 사실을 알리며 “네이마르의 회복 프로그램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

다. 네이마르는 전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 경기에 출전했으나 전반 막바지 다쳤다. 네이마르는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0-2로 완패하며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3위로 밀려났고, 11월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와 2연전을 앞두고 있다.

상대 선수 니콜라스 데라크루스와 경합 이후 그라운드에 발을 디뎠으나 휘청이며 넘어졌다. 통증을 호소한 네이마르는 손으로 땅을 치며 괴로워했고,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갔다. 실려 나갈 때는 눈물을 가리는 듯 손으로 눈 쪽을 감싸기도 했다.

큰 부상이 우려되는 반응이었는데, 전

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으로 수술까지 받

## 피겨 유영·위서영, 시니어 GP 1차 대회 출전…새 시즌 시작

지난 시즌 세계 무대를 호령했던 한국은반 스타들이 다시 뛴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경쟁하는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가 21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텍사스주 엘런에서 열린다. 한국은 여자싱글 유영과 위서영(수리고), 아이스댄스 임해나-취안예(이상 경기일반) 조가 1차 대회에 출전해 첫 테이프를 끊는다.

유영과 위서영은 22일 오전에 열리는 여자 쇼트를 시작으로 메달 획득에 도전하고, 임해나-취안예 조 역시 같은 날 리듬 댄스에 나선다.

유영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 여자 싱글 간판으로 활약했으나 올림픽 대회 기간 부친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뒤 충격을 받았고, 이후 각종 부상 속에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 1월에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부진해 국가대표 자격조차 얻지 못했으나 개인 자격으로 그랑프리 1차 대회와 11월에 열리는 5차 대회에 출전해 재기를 노릴 계획이다.

/ 백현중 기자

## SR의 새로운 변화 대한민국 철도의 가치를 높입니다

SRT를 통해 만나는 사회, 경제, 문화의 융·복합 서비스  
국민의 철도 플랫폼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CHANGE SRT

# 통쾌한 한 방을 위한 기나긴 기다림...영화 '용감한 시민'

학폭 가해자 주먹으로 응징하는 기간제 교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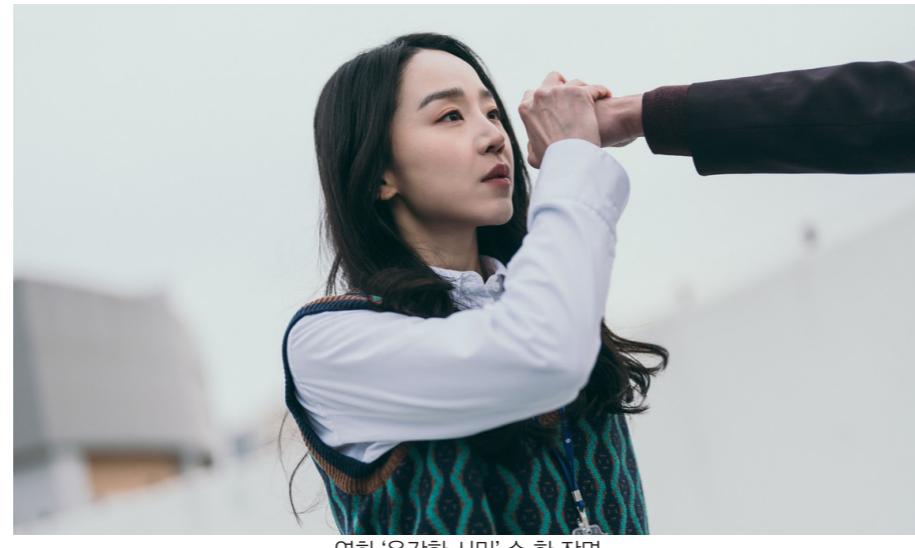
평온한 고등학교 교정에 포르쉐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들어선다. 차에서 내린 건 교사도 학부모도 아닌, 학생 수강(이준영 분)이다. 학교폭력을 주도해 2년을 유급 당한 그는 이 학교의 왕이다.

학교 안에서 벼젓이 담배를 피우는 건 물론이고 교사에게 존댓말조차 쓰지 않는다. 심지어 동급생 진형(박정우)을 때리는 걸 교내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학교 앞에서 김밥을 파는 할머니에게 폐악을 부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겸찰에 '빡'이 있고 학교 재단과 줄이 달아 있으며 집도 부자인 수강을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이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강적이 생긴다. 전직 프로 복서 이자 기간제 교사 시민(신혜선)이다. '소시민'이라는 이름처럼 조용히 일하다 정규직이 되는 게 그의 꿈이지만, 수강의 안하무인인 시민의 눈에 자꾸만 거슬린다.

시민은 결국 고양이 모양의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채 수강을 흡씬 두들겨 패주 기 시작한다.

박진표 감독이 연출한 영화 '용감한 시민'은 친구들을 괴롭히던 수강과 그에 맞



영화 '용감한 시민' 속 한 장면

서는 시민의 이야기다. 김정현 작가가 연재한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이다.

선아이 뚜렷한 캐릭터와 악인을 범에 앞서 주먹으로 응징한다는 스토리는 '범죄도시' 시리즈를 떠올리게 한다.

야자에겐 한없이 강하던 수강이 시민에게 정신 차릴 새 없이 맞는 장면을 보면 퀘감이 찾아온다. '범죄도시', '핸트' 등에서 실력을 뽐낸 허명행 무술감독 표 액션도 시원한 타격감을 안긴다.

그러나 이런 통쾌한 한 방을 느끼기 위

해서는 인내심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학교 폭력이 체감상 러닝타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여자라고 해서 수강 일당의 폭력을 피해 기진 못한다. 자기 몸집의 반만 한 여학생 머리채를 질질 끌고 가 얼굴을 밟는 모습에선 절로 눈이 짙은 감긴다. 시민의 "참교육"을 더 극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도 시원한 타격감을 안긴다.

해도, 여자 교사를 향한 성추행과 욕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영화는 깔끔한 권

선징악으로 마무리되지만, 허무함과 무력감이 찾아올 수도 있다.

시민이 용기를 내 수강을 처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수강 일당 못지 않은 싸움 실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결국 수강만큼 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허락되기 어려운 정의 구현이라는 말이다. 공권력과 힘을 동시에 가진 '범죄도시'의 괴물 형사마석도(마동석)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웹툰에선 자연스레 받아졌던 세계관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어색해진 감도 있다. 아무리 교관이 바닥에 떨어지고 청소년 범죄가 극심한 요즘이라고 해도, 영화 속 학교는 도저히 실존할 것 같지는 않다.

박 감독은 17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시사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 교관 침해와 학폭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문제"라면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뿐이고 지금 세상에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25일 개봉. 112분. 15세 이상 관람가.

/ 권정석 기자



왼쪽부터 배우 정려원·위하준

## 안판석 PD 신작 멜로 '졸업'에 정려원·위하준 출연

배우 정려원과 위하준이 학원 강사로 변신해 멜로 연기를 선보인다. tvN과 티빙은 새 드라마 '졸업'의 캐스팅을 마치고 촬영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중 공개되는 '졸업'은 베테랑 학원 강사 서혜진(정려원 분)과 10년 만에 돌아와 그의 마음을 휘젓는 제자 이준호(위하준)의 로맨스를 그린다.

정려원은 '대치동 기적'을 이뤄낸 14년 차 베테랑 국어 강사 서혜진 역을 맡았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내공을 가진 그는 포기를 모르는 조용한 승부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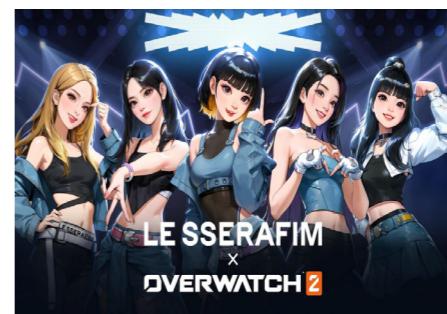
강단에서 내려온 이후의 삶을 고민하던 와중에 혼신의 힘을 다해 명문대에 보냈던 제자가 10년 만에 나타난다. 꽉꽉한 현실에 잊고 지냈던 설렘을 다시 느끼기 시작한다.

위하준은 서혜진을 유명 강사로 만든 '대치동 기적'의 주인공 이준호를 연기한다. 탄탄대로가 보장된 대기업 사원증을 버리고 대치동 신입 강사로 들어온다.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봄밤', '밀회' 등을 만든 안판석 PD가 연출을 맡았다.

/ 김희정 기자

## 르세라핌, '오버워치 2'와 MV 협업...블리즈컨서 무대도



작했다고 소속사 쏘스뮤직이 19일 밝혔다.

'오버워치 2'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팀 기반 액션 게임으로, 오버워치가 게임 내 콘텐츠와 관련해 가수와 협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르세라핌은 다음 달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게임 축제 '블리즈컨 2023' 무대에도 오른다.

/ 양수민 기자

##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http://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바라는  
자녀의 마음과  
자녀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마음,

모두 이뤄지도록  
국민연금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이 이어지다  
마음이 이뤄지다

금융의 모든 순간 \*

NH농협금융

스마트업이 성장하도록,  
NH가 손을 보탠다

기술력이 있어도, 잠재력이 있어도,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에겐 금융의 손길만큼 절실한 것이 또 있을까요?

NH농협금융은 오픈 비즈니스 데이와 디지털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에게 금융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이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H농협금융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금융이 응원합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